



1 2014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5회 동아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16일 서울 송계문앞을 통과하고 있다.



2 일반인 참가자들 가운데엔 한국의 미를 알리기 위해 궁중 한복을 입고 역주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3 최고령 참가자인 86세 김중주 씨가 밝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4 마스터스와 10km 부문 참가자들이 서울 잠실대교를 건너고 있다.

봄의 과잉친절...너무 따뜻해 선수들 다리가 천근만근

서울국제마라톤·동아마라톤 상보

기온 상승하면서 후반 체력 급격히 떨어져
대회기록 2시간5분37초 경신 아쉽게 실패

섭씨 2.4도의 차이는 컸다.
16일 열린 2014서울국제마라톤대회 겸 제 85회 동아마라톤대회의 출발시간인 오전 8시 기

온은 섭씨 7.1도였다. 바람도 없었고 해도 뜨지 않았다. 마라톤하기에 안성맞춤인 날씨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올랐다. 해도 쨍하게 났다. 레이스 막판인 10시쯤엔 9.5도까지 올랐다. 이런 기온 상승이 엘리트 선수들의 발목을 잡았다.

국제 남자부에서 2시간6분17초로 우승한 야콥 아르소 킨트라(에티오피아)를 비롯해 모든 선수가 후반에 급격한 체력 저하 현상을 보였다. 킨

라는 30km에서 35km까지 5km 구간 랩타임이 15분35초로 이날 가장 나쁜 페이스를 보였다. 34km 지점에 약간의 오르막이 있다고 해도 14분40초대와 15분10초 이내로 달리던 페이스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결국 대회기록(2시간5분37초)을 경신하지 못했다.

18년 째 난공불락인 여자 한국 최고기록(2시간26분12초) 경신에 나섰던 김성은(삼성전자)도 후반에 페이스가 흔들렸다. 매 5km를 17분 중·

후반대로 달리던 김성은은 30km에서 35km까지 18분14초, 35km에서 40km까지는 18분8초로 급격하게 페이스가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레이스를 중계한 윤여춘 MBC 해설위원은 “마라톤에서 기온의 차이가 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후반 막판에 갑자기 기온이 오르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잘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날씨가 도와주지 않

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2012년 코치의 권유로 마라톤에 입문한 킨트라라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순위 상금 8만 달러, 기록 상금 2만 달러 등 10만 달러(약 1억 원)를 거머쥐었다. 국제 여자부에서 2시간27분29초로 개인 최고기록(2시간28분2초)을 깨며 우승한 헬라 킵롭(케냐)은 우승 상금 4만 달러, 기록 상금 5000달러 등 총 4만5000 달러(약 4800만 원)를 받는다.

양종구 동아일보 기자 yjongk@donga.com



기부천사로 유명한 선(뒷줄 오른쪽에서 2번째)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뒷줄 오른쪽에서 3번째)이 16일 독점유원지에 열린 2014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5회 동아마라톤대회 ‘서울챌린지 10K’에 참가해 푸르메재단 봉사자들과 함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영대 동아일보 기자 sannae@donga.com

기부천사 선 ‘사랑의 레이스’

자선 레이스 ‘서울챌린지 10K’ 참가
재활전문병원 건립 위해 값진 땀 흘려

가수 선(42)이 ‘사랑의 레이스’를 펼쳤다. 선은 ‘서울챌린지 10K’에 참가했다. 올해부터 신설된 ‘서울챌린지 10K’는 10km 단축마라톤으로, 국제구호개발 단체인 월드비전과 재활전문병원을 짓는 푸르메재단과 함께 자선기금을 모으는 장으로 ‘자선레이스’라고 불린다.

연예계의 유명한 ‘기부천사’ 선은 기꺼이 레이스에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선은 최근 20여개 마라톤대회 출전과 훈련을 통해 1km당 1만원씩을 적립한 뒤 총액 1억원을 모아 기부하기도 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선을 응원하는 200여명의 지인들도 한 명당

2만원씩 기부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을 응원하는 지인들의 이름을 기념 티셔츠에 빼곡하게 적어 레이스에 임했다.

10km 완주에 성공한 선은 “평소에도 달리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한다. 건강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돕는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달렸다. 일반인들에게 건강이 중요하듯이 재활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는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레이스에는 선 이외에도 산악인 엄홍길 대장, 신현철 전 SK에너지 부회장, 강지원 변호사 등이 참가해 ‘자선레이스’에 동참했다.

참살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아프리카 브룬디서 귀화한 ‘마스터스 황제’

■ 마스터스 남자 우승 김창원 씨

김창원 씨(36·사진)가 마스터스 왕좌로 돌아왔다. 김 씨는 마스터스 남자 부문에서 2시간26분38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2006~2008년 대회 3연패를 차지하며 ‘마스터스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그는 2007년 대회에서 2시간18분38초를 기록하며 국내 대회 마스터스 부문에서 처음으로 2시간 20분대의 벽을 깼다.

아프리카 브룬디 출신인 김 씨는 2004년 브룬디 대학생 대표로 대구 유니버시아드 육상대회 하프마라톤에 출전했다가 난민 신청을 했고 2010년 귀화했다. 2011년, 2012년 대회에서도



1위에 올랐던 그는 지난해 일본의 마키노 사에키 씨(27)에게 밀려 두 번째 3연패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대회에서 지난해 기록(2시간27분38초)보다 1분 단축해 명예를 회복했다.

김 씨는 “지난해에는 일본 선수를 따라가려고 초반에 오버 페이스를 했지만 이번에는 페이스 조절이 잘 됐다. 뛰기에 알맞은 따뜻한 봄 날씨도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2013 경주국제마라톤 마스터스 남자부 폴코스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박민우 동아일보 기자 minwoo@donga.com

서울국제마라톤 7차레나 제패 ‘서울의 여인’

■ 마스터스 여자 우승 이정숙 씨

‘서울의 여인’ 이정숙 씨(49·사진)는 여유가 넘쳤다. 마스터스 여자 부문에서 2시간48분8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이 씨는 숨찬 기색도 없이 웃으며 인터뷰를 할 정도로 힘이 넘쳐 보였다.

이 씨가 이번 대회를 포함 서울국제마라톤에서 7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그가 ‘서울의 여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2006~2009년까지 마스터스 4연패에 성공한 그는 2011년, 2012년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왼팔이 부러져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올해 다시 정상에 오르며 건재함을 과



시했다. 기록도 2011년에 세운 자신의 마스터스 최고 기록(2시간47분54초)에 14초밖에 뒤지지 않았다. 마스터스 여자부에서 2시간 40분대 기록은 이 씨가 유일하다. 그는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 마라

톤은 인생을 즐기 위한 것이다. 그 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갔다”며 즐거워했다.

이 씨의 가족은 ‘육상 가족’이다. 그와 남편 최진혁 씨(51)는 대학시절 마라톤 선수 출신이다. 세 자녀 가운데 2명도 부모의 육상 유전자를 물려받아 현재 중장거리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박민우 동아일보 기자

● 서울국제마라톤 엘리트 순위(국제)-남자

순위	이름	기록
①	야콥 아르소 킨트라(에티오피아)	2시간16분17초
②	첼라니 스티븐 크웨일로(우간다)	2시간16분24초
③	길버트 킵루토 키르와(케냐)	2시간16분44초
④	타리쿠 주파(에티오피아)	2시간17분2초
⑤	페렐레 아브레함 체르코스(에티오피아)	2시간17분8초
⑥	제임스 킵상 캄바이(케냐)	2시간17분38초

● 서울국제마라톤 엘리트 순위(국제)-여자

순위	이름	기록
①	헬라 킵롭(케냐)	2시간27분29초
②	아슈 카심(에티오피아)	2시간27분45초
③	헬라리아 조한네스(나미비아)	2시간28분27초
④	김성은(삼성전자)	2시간29분31초
⑤	아질레크 마르세사 올메셀라세(러시아)	2시간29분47초
⑥	최보라(경주시청)	2시간32분43초

● 서울국제마라톤(국내)-남자

순위	이름	기록
①	심종섭(한국전력)	2시간14분19초
②	김민(삼성전자)	2시간15분40초
③	성지훈(고양시청)	2시간16분4초
④	김성하(한국체대)	2시간16분14초
⑤	유치웅(한국체대)	2시간16분45초
⑥	김지호(한국체대)	2시간17분13초

● 서울국제마라톤(국내)-여자

순위	이름	기록
①	김성은(삼성전자)	2시간29분31초
②	최보라(경주시청)	2시간32분43초
③	박호선(삼성전자)	2시간38분23초
④	최경선(충남체육회)	2시간39분10초
⑤	백순정(삼성전자)	2시간39분21초
⑥	김수진(K-WATER)	2시간44분12초

● 마스터스 여자부 순위

순위	이름	기록
①	이정숙	2시간48분8초
②	이민주	2시간51분
③	정순자	2시간55분36초
④	류승화	2시간56분2초
⑤	이금복	2시간57분55초
⑥	오상미	2시간56분56초

● 마스터스 남자부 순위

순위	이름	기록
①	김창원	2시간26분38초
②	김형락	2시간32분21초
③	최진수	2시간33분47초
④	심재덕	2시간33분50초
⑤	백운섭	2시간35분54초
⑥	김윤오	2시간36분42초

“서울국제마라톤 운영 노하우 배우러 왔다”

■ 세이셀공화국 외교수석 배리 푸어 씨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손님 폴코스 완주
자국 ‘एकोहिलमाराठन’에 기법 도입 계획

“정말 멋진 레이스였다.” 마스터스 폴코스를 완주한 배리 푸어 세이셀 공화국 외교 수석(50·사진)의 얼굴은 무척 밝았다. 원발 족자근막염 탓에 통증을 느껴 힘든 레



뒤서 되겠는가. 이승숙 씨(51) 등 페이스메이커를 해준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청계천과 한강을 지나 왔는데 너무 아름

스를 펼쳤지만 봄기운이 완연한 서울 도심에 달리는 기분

이 너무 좋았다. “사실 30km를 지나면서 힘들었다. 걷다시피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서울에 처음 왔는데 중도에 그만

다왔다.”

푸어 수석은 서울국제마라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완주했다.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세이셀공화국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지상낙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왕세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부호들이 즐겨 찾는다. 이런 세이셀도 2008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에코힐링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연을 벗 삼고 사는 나라라 비만이 없었는데 햄버거와 피자 등 고 칼로리 외국 음식이 들어오면서 살찐 사람이 늘었다. 그래서 마라톤여 행사를 하던 정동창 세이셀공화국 명예총영사(54)의 도움을 받아 대회를 만들었다. 처음에 300여명이던 참가자가 2월엔 1700여명으로 늘 정도로

마라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2월 에코힐링마라톤대회에서 폴코스를 5시간 만에 완주한 푸어 수석은 “세계적인 대회로 평가 받는 서울국제마라톤의 운영을 배워 세이셀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4시간45분57초의 개인 최고기록을 세운 그는 “마스터스마라토너들의 기록을 재는 칩을 당장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이셀에는 기록 재는 시스템이 없어 초시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록을 불러주고 있단다. 푸어 수석은 “내가 서울국제마라톤을 완주한 첫 세이셀 국민이다. 내 완주는 곧 세이셀 국민의 완주다. 한국과 세이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구 동아일보 기자 yjongk@donga.com

편집 | 박재용 기자 parkji@donga.com 트위터@parkyoon